



# 정교회주보

제2429호

2023.7.1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게오르기 성당(사진)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교회 성당이다. 4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성당을 둘러싼 유적은 로마 시대의 목욕탕 터다. 붉은 벽돌을 이용한 둥근 형태가 특징으로 중앙 돔 안의 벽화가 유명하며 22인의 예언자가 그려져 있다. 오스만 제국 통치 시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며 벽화가 훼손되었으나 20세기에 복원되었다.



제4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아티노게니스 주교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6)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디도 3,8~15 ..... (봉)539
  - 복음경 : 마태오 5,14~19 ..... 16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하느님 현존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견디기 어려운 곳이다. 그분의 부재에 대한 모든 생각은 깊은 좌절, 공허감, 목적의 결핍, 목적지에 대한 불안, 존재 이유나 의미에 대한 환멸을 불러온다. 지금 당장은 거리낌 없이 더 편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전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다.

반면에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은 희망을 낳고 빛을 주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성서는 하느님을 살아 계시고, 능동적이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것은 그것을 통해 깨달음,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성서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사건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낸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중에서

# 야심가 vs 하느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야심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야심가는 인정과 자비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르코 10,37) 자신들을 첫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세속적 영광과 위대함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둘째, 야심가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에 따르면, 제베대오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자신들의 어머니에게까지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태오 20,20-22)

셋째, 야심가는 자신이 어떤 상태와 처지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마르코 10,38)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심가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나 적합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야심가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고, 가능하다면 온 세상까지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무덤에 거하게 될 것”(오순절 전 영혼 토요일 성가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을 살피고 확인합니다. 그리해서 뜬구름을 잡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충실히 붙이고 살아갑니다.

둘째, 경건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온”(마르코 10,45)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란 남을 ‘섬기는’ 사람이며, 으뜸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마르코 10,43-44)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경건한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가꾸고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떠다니는 쓰레기가 되기보다는 언젠가는 발견될 숨은 진주가 되는 걸 더 선호합니다.

#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1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욥 2,9)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하고 죽으라’고 말함으로써 욥의 상처에다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모멸감마저 안겨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가족들, 농작물과 헛간, 집 등 자신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지지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북돋는 대신에 ‘그냥 포기하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곧, 자신들의 불행에 대해서 하느님을 욕하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칭찬받아 마땅하게도,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부추기는 말에

쉽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참사, 질병을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에게서 온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지요?”(욥 2,10)

선과 악(또는 불행, 이사야 45,7)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서로 나란히 함께 존재합니다만, 나쁜 일을 우리 삶에 내리는 하느님의 ‘징벌’로 바라보려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유혹입니다. 욥도 그런 시각을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가시밭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신앙에 충실하고 변함없이 깨끗하게 인내한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산이며,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만 할 큰 목표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7월 17일(월)  
성 마리아 대순교자
  - \* 7월 20일(목)  
엘리아 예언자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소식

###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대교구 여름 수련회의 초중고등부 일정이 운영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오늘(16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장소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일정 : 7/21(금)-23(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6(수)-31(월): 초중고등부 모두 (참가비 9만원)

\* 교통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성화 작업

그리스에서 온 성화 작가들과 한국 봉사자들이 내일(17일)부터 전주 성모안식 성당 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거룩하고 중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미국 미시간주 성모희보 성당 결혼성사

지난 7월 1일(토), 니콜라스 홍성태-테오파니 우소희(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3녀)의 결혼성사가 거주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완덕을 향한 자세

성인의 가르침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또한 옛 스승들의 경지에도 결코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고 없이 하느님의 은사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쉽게 미끄러진다. 그리고 마치 사탄이 없는 곳을 찾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기도처를 자주 옮긴다.”

언젠가 다시 제자들에게 말했다.

“한동안 본인의 한계를 넘어선 투쟁과 수고를 하다가, 그 후에 태만에 빠지고, 또 다시 격렬한 투쟁을 하다가 급속히 약화하는 사람은 결코 인내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영적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